

# 한국어항협회 “크린오션”호 수탁 운영 서·남해-항내부터 연안어장까지 정화

**이**제부터 해양폐기물 수거 작업이 서남해에서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.

지난 5일 출항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해양정화 작업에 들어가는 「크린오션」호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 수심이 낮고 빨증이 많은 서·남해안 수역의 부유 또는 침전 해양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다기능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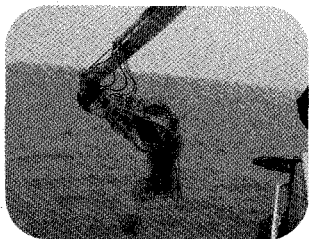
한국어항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는 「크린오션」호는 기존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어항청소선 및 대형 침적 폐기물 수거선 등과 연계, 해양정화 작업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.

한국어항협회는 그동안 실시해 온 해양정화정비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심이 낮은 서남해역의 폐기물 수거와 연안어장, 특별어장의 정화 및 연안수역의 침체어망 인양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.

크린오션호는 인천항을 정박항으로 하고 일일 5톤, 년 100일간 서남해안 정화 작업을 실시한다.

현재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양정화 작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각 지역별 작업 계획 조정을 끝낸 후 연평도 꽃게어장 및 김 양식장 수중 폐기물 수거 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. (어항협회소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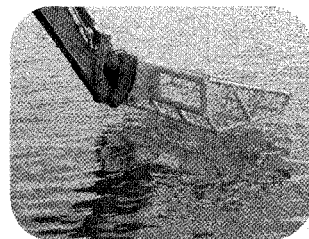
## ▶ 크린오션호 장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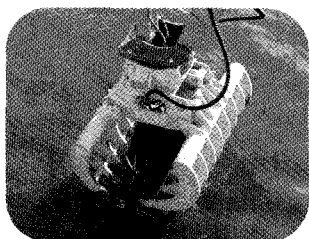
오렌지 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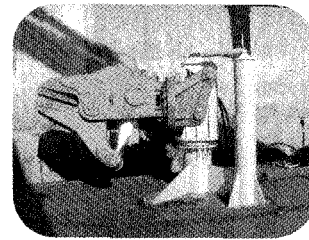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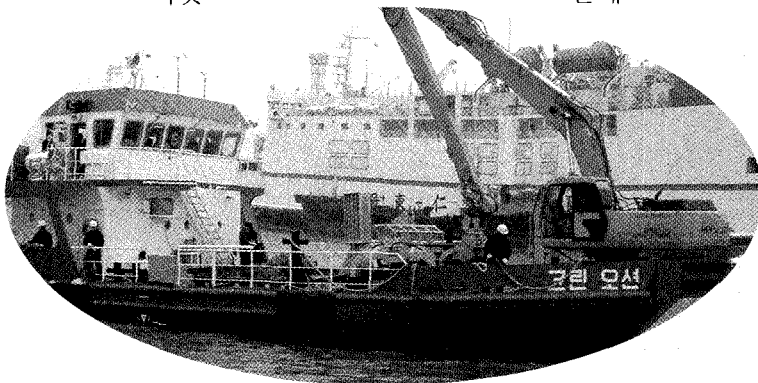
버킷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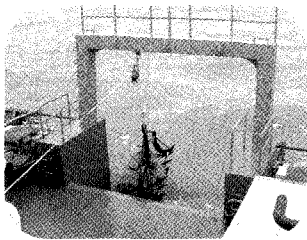
뜯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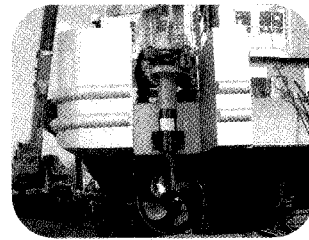
레이크



유압절단기



갈고리 예인시스템



선외추진기

총톤수	마 력	주 요 치 수	속 력	승 조 원
99톤	320마력 × 2기	26.96m(장) × 10m(폭) × 2.3m(심)	7노트(만재시)	5명